

EU, Deca-BDE 위험평가 종결

EU MSCA, 방출규제 프로그램도 지지 ... 위험요인 증명 안돼

EU MSCA(Member States' Competent Authorities)가 5월 26-27일 회의를 열고 Deca-BDE에 대한 위험평가를 종결하고 산업적인 방출규제에 관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지지기로 결정했다.

Great Lakes Chemicals에 따르면, 난연제로 사용되는 Deca-BDE에 대한 유럽지역의 위험평가보고서 결과 특별히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며, 이에 따라 CA(Competent Authorities)는 환경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결과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.

유럽의 Deca-BDE 생산기업 및 수요기업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자발적인 방출규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원하고 있으며, 특히 난연제와 섬유기업 대표자들은 즉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.

EBFRIP(European Brominated Flame Retardant Industry Panel)는 EU(European Union)가 Deca-BDE에 대한 RoHS Directive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Deca-BDE는 가정에서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하우징과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섬유시트커버 등에 연소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난연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한 논란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6/03>